

전북, 전국소년체전서 선전

대회 3일째 금 16·은 14·동 18개 등 총 48개 메달 획득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면서 전북 체육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30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경북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년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대회 시종일관 30일 현재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4개, 동메달 18개 등 총 4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수영과 태권도, 육상, 씨름, 유도, 자전거, 에어로빅 등 고른 종목에서 메달이 쏟아져 나오면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특히 검도에서는 34년 만에 소년체전 우승이라는 쾌거를 일궜다. 남자 중등부 단체전에 나선 선수들은 전남과 경북 경기를 차례로 물리친 뒤 결승에 진출했고 기세를 몰아 접전 끝에 인천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당초 전력 분석 결과 어려움이 예상됐던 단체종목에서 최상의 기량을 뽐내면서 준결승에 안착했기 때문이다.

축구에서는 초등부(전북현대U12)와 중등부(금산중)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고, 남성중과 근영중 배구부도 준결승에 오른 상태다.

또한 배드민턴 남·녀 중등부도 4강에 진출한 상태며, 농구(전주남중)과 탁구(이일여중), 핸드볼(이리중)도 동메달을 확보했다.

아울러 태권도와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복싱, 레슬링, 볼링, 골프, 수영 등의 종목에서도 메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강선 회장은 "전북 체육의 미래이자 꿈나무인 선수들이 선전을 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며 "대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년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대회로, 도내에서는 720명(초등부 288명, 중등부 452명)이 전북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박광윤의 골세레머니.

(사진=전주시민축구단 제공)

'K4리그 전주더비'서 '닥공'

전주시민축구단, 전북현대B팀과 원정 경기서 5대 4로 승리

전주시민축구단이 K4리그 전주더비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는 지난 29일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2 K4리그' 15라운드 전북현대 B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5대 4로 승리, '닥공'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날 승리로 전주는 5월에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승점 21점(6승 3무 5패)으로 7위를 탈리고 있다.

특히 전주는 골키퍼들의 장기 부상으로 골문을 수비수인 주장 김태연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6경기에 출전해 3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경기 초반 전주는 상대를 압박과 함께 전방에서 김도형과 김종진, 안태원, 신화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회를 찾았다.

전주에서 전반 4분 첫 골이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안태원이 올린 공을 용환빈이 헤더로 연결하고 상대 골키퍼 황병근 선방으로 막고 나온 공을 여인혁의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다.

이어 전반 23분 역습 상황에서 상대 왼쪽에서 김도형이 가운데로 쇄도하는 박광윤에게 연결한 공을 박광윤이 침착하게 밀어 넣어 상

대 골문을 갈랐다. 김도형이 전반 37분 상대 수비라인 무너트리며 골키퍼와 1대 1 상황을 만들었고, 상대 골키퍼가 선방했지만 김도형이 침착하게 공을 재차 밀어 넣었다.

전주는 전반 추가시간에 전북 장윤호에게 프리킥 골을 내주며 3대 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시작 3분 만에 전주가 얻은 프리킥을 김태연이 상대 골문으로 길게 연결한 공을 용환빈이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상대 골문을 갈랐다.

전북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4대 1로 앞선 상황에서 전주가 집중력이 떨어지자 전북이 후반 8분과 12분에 박준범과 장윤호에게 각각 골을 내주며 4대 3으로 추격해 왔다.

하지만 전주는 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도형이 올린 공을 심원성이 헤더로 득점에 성공하며 5대 3으로 점수 차를 벌렸지만, 후반 19분 전북 박준범에게 골을 내주며 불안하게 앞서갔다. 전주는 이후 수비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북 B팀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첫 K4리그 전주더비에서 5대 4로 승리했다.

/정은성 기자

공희용, 세계대회 우승 후 금의환향

세계여자단체 배드민턴선수권서... 전북은행 찾아 은행장과 환담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 소속 배드민턴 국가대표이자 도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공희용(26) 선수가 세계여자단체 배드민턴선수권대회(우버컵)에서 우승한 후 금의환향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귀국 후 전북은행 본점을 찾은 공희용 선수를 만나 환담을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공 선수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여자대표팀은 지난 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우버컵 결승에서 강호 중국을 3-2로 꺾고 2010년 대회 우승 후 12년 만에 정상에 차지했다.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로 1-2로 밀리기도 마지막 4-5경기를 패하며 이룬 극적인 우승이었다.

공 선수는 "12년만의 우승이니 감회가 새롭고, 아직 그날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며 "개인전과 달리 단체전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대표팀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결과라 더욱 값진 것 같다"고 밝혔다.

공 선수는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소영 선수의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김혜정(24·삼성생명) 선수와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은 이미 대표팀 훈련이나 이전 대회에서 호흡을 맞췄던 터라 경기력에 전혀 문제없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특히 1-2로 뒤지고 있던 터라 4번째 복식 경기에 나섰던 공희용 김혜정 조의 승리가 절실했다. 결국 두 사람은 중국을 2:0으로 누르며 팀을 패배에서 구했고 이어 마지막 단식 경기에서 승리하며 대한민국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것.

공희용 선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단체전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승부에 반신반의



한 상태였는데 두 번째 복식 경기를 우리가 가져오면서부터 몸을 더 열심히 풀고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출신인 공희용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전북은행에 입단하면서 태극마라도 함께 달았다. 그는 "입단할 때 배드민턴 전용 JB GYM과 사택이 지어지면서 훈련 환경도 너무 좋고 은행에서 지원이 많이 해 주신다"면서 "선수 생활의 3분의 2를 대표팀에서 하다 보니 전북은행 팀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쉽지만 올 때 마다 감독님과 팀원들이 항상 잘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관령숲길 예약 탐방 프로그램

11월 22일까지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회복과 건강한 등산·트레킹문화 확산을 위해 대관령숲길 예약 탐방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관령숲길 예약 탐방 프로그램은 대관령 소나무숲길(6.3km) 구간을 숲길등산지도사들과 함께 걸으며, 대관령숲길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해 명소들을 만나는 체험과 산림치유지도사가 운영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관령숲길만의 특별한 예약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관령숲길에서 힐링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1일 2회 20명까지 모집한다.

참여방법은 전화예약이며, 예약 당일 현장에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준비물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komount.or.kr>) 및 대관령숲길안내센터(039-386-4037)로 문의할 수 있다.

전범권 이사장은 "100년 명품 대관령소나무숲길 탐방과 산림 치유로 오감을 일깨워 몸과 마음이 치유돼 신체 면역력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관령소나무숲길은 강원도 성산면 어흘리 일원에 위치하며, 총면적 4km, 축구장 571개 규모로 지난 2000년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전할 아름다운 숲'과 2017년에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 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

또한 2021년에는 국가숲길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도 지정됐다. /유호상 기자

제9회 전국 품바 명인전

6월 3일(금) 전주 동남문화광장 특설무대

오후 6시~8시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사

후원: 전북도, 전주시

문의: 063-288-9700

(본사 업무국)



본 행사는 전북도, 전주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됩니다.